1. 질환 경험 및 이해도

1.1 치료 시작시기

Q. 언제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는지요?

30대 초반, 출산 후 요실금 발병, 이후 증상 악화

“첫애 낳고 2~3년 후에 바로 요실금이 있었고요. 둘째 낳고 더 심해졌으나 참을 수 있었는데. 7~8년 전부터 패드가 필요할 정도로 심해졌고” (ID1, 여, 40대, 회사원)

“30대 초반예요. 계속 버티다가 좀 불편해서 가면.” (ID3, 여, 50대, 회사원)

“처음에 찝끔찝끔 나오게 된 것은 5~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참을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랬다가 작년에 10월, 11월쯤부터 심해져서” (ID4, 여, 40대, 주부)

“출산 후가 더 심해져서. 30대 초에 출산한 다음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여자들 대부분 이 요실금 있으면 그건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서. 너도나도 얘기해 보면 여자들은 대부분 있는데, 수술을 당장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ID5, 여, 40대, 주부)

“여자들이 애 낳으면 보통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ID6, 여, 40대, 주부)

발병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치료 시작 (창피함, 보험 미적용, 요실금 인식 못함, 통증 없음)

“거의 10년을 끌면서 이번에 수술한 것 같아요. 산부인과 가면 그런 검사를 안 해주고 사실 비뇨기과 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창피하잖아요. 저희들이 갈 때는 대부분 여성 산부인과로 간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게 아니구나 생각해서 버틴 거였죠.” (ID2, 여, 50대, 회사원)

“20년이 지나서는 안 되겠다. 모든 여자는 질염이 저 정도 수준이 있는 줄 알았는데” (ID3, 여, 50대, 회사원)

“비뇨기과를 가야 된다고 했어요. 창피해서 못 가고 있다가 불편해서” (ID4, 여, 40대, 주부)

“12~13년 됐는데 남편이 권하기도 했고” (ID5, 여, 40대, 주부)

“병원을 가야지 마음은 있었는데, 그게 보험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ID5, 여, 40대, 주부)

“처음에는 방광염인지 알았어요. 병원에 가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실금은 생각도 못 했어요. 내 나이에 무슨 요실금 했는데요. 염증이 없다고 해서 심리적인 것 같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통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심각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ID6, 여, 40대, 주부)

1.2 생활의 불편정도

Q. 평소 생활하시는데 요실금으로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요?

재채기, 걷기, 뛰기, 운동 중 요실금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

“줄넘기나 제자리 뛰기는 아예 못 했고, 급하게 뛰거나 횡단보도 깜빡깜빡할 때 뛰면 새는 정도.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진 정도” (ID1, 여, 40대, 회사원)

“30대에는 밤에 속보로 걷는 운동을 1시간씩 하는데 그때 젖는 거죠.” (ID3, 여, 50대, 회사원)

“걷거나 기침하면 새니까” (ID4, 여, 40대, 주부)

“재채기를 하면 순간 나와서. 운동하다 뛰는 것을 하다가 저는 멈춰요.” (ID5, 여, 40대, 주부)

주변인의 냄새 인식

“냄새 같은 것도 있고” (ID1, 여, 40대, 회사원)

“40대에 직장에서 보고할 때 바로 앞에 계신 부장님이 코를 킁킁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냄새가 나는구나.” (ID3, 여, 50대, 회사원)

“이거 때문에 (배우자와) 방을 따로 썼어요. 냄새 날까 봐. 밤에 화장실을 가니까.” (ID2, 여, 50대, 회사원)

패드, 방수팬티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

“패드 같은 것을 해야 됐거든요. 수술하기 전까지 1~2개 정도는 비상시로 갖고 다니는” (ID1, 여, 40대, 회사원)

“방수 팬티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옷들도 산 때문에 상하니까. 저는 팬티를 하루에 5개씩 갖고 다녔어요. 패드를 안 한 이유는 그게 냄새가 더 난다고, 그리고 더 건조하게 만든다고 해서” (ID2, 여, 50대, 회사원)

“패드가 안 좋다고 하고. 매일 빠는 거로 했거든요.” (ID3, 여, 50대, 회사원)

“패드 하는 동안 상관없는데. 얇은 옷을 입었을 때는 티가 나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ID5, 여, 40대, 주부)

심리적 불안감, 우울감

“저는 잔여감이 심했어요. 불안하죠. 왜냐하면 화장실 가야지 했는데 벌써 나오니까.” (ID2, 여, 50대, 회사원)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정말 우울해서. 너무 부끄럽죠. 자존심 상해요. 70~80대 어머니 세대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30대인데 그 자괴감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셨으면” (ID3, 여, 50대, 회사원)

“늘 패드 라이너 같은 것을 사용해야 하니까 그게 불편했구요.” (ID4, 여, 40대, 주부)

“살을 빼고 싶는데 운동하려고 될 수가 없고 패드를 하고 기도 불안한 거예요” (ID5, 여, 40대, 주부)

질염 등 질병 발생

“질염이 생기더라고요.” (ID2, 여, 50대, 회사원)

1.3 수술 이전 다른 치료법 경험

Q. 요실금으로 인해 받은 치료법(예, 중부요도슬링, 단일절개 슬링 등) 이전에 다른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골반저근육운동(케겔운동)

“케겔운동 같은 것도 집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병원 가서 진료하던 선생님이 근육 자체가 비어서 케겔운동을 해도 소용없는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ID1, 여, 40대, 회사원)

“케겔은 해 보고 바로 효과가 없다고 알았어요.” (ID5, 여, 40대, 주부)

“병원에서는 급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훈련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ID6, 여, 40대, 주부)

약물 치료

“수술을 받는다는 용기는 감히 없었고, 약을 처방해 주시고 정도” (ID3, 여, 50대, 회사원)

“불편감을 계속 느끼다가 약 처방받으면 호전이 되고.” (ID3, 여, 50대, 회사원)

“속옷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염증이냐 냄새가 생겨서, 산부인과에서 처방해 주는 약만 갖고 와서 냄새를 호전 시키고, 질 안에 넣는 약을 처방받기도 했어요.” (ID2, 여, 50대, 회사원)

치료 노력하지 않음

“민간요법은 아는 것도 없었고” (ID4, 여, 40대, 주부)

“그전에는 치료받거나 한 것은 없었어요.” (ID5, 여, 40대, 주부)

2. 치료결정

2.1 치료결정 이유

Q. 그럼 이번에 요실금 치료를 받기로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실금 빈도 증가, 새는 소변량의 증가, 잔뇨감

“빈도가 심해지니까 생활의 질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죠. 버티다 버티다 안 된 거죠. 이제는 내가 못 살겠다.” (ID1, 여, 40대, 회사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위생상으로도 그렇고, 봄 되면 옷도 얇아지잖아요.” (ID4, 여, 40대, 주부)

“그 전에는 기침하다가 나오는 정도니까 괜찮았는데, 걷기 하다가 나올 정도로 너무 급하게 찾게 되고. 화장실 찾다가 조금 나오기도 하나니까, 불편함을 참기가 어려워서” (ID6, 여, 40대, 주부)

가족의 권유

“12~13년 됐는데 남편이 권하기도 했고, 운동을 할 수 없으니” (ID5, 여, 40대, 주부)

Q. 요실금 치료를 위한 여러 치료법 중에 해당 치료법(예, 중부요도슬링, 단일절개 슬링수술 등)을 받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술적 치료 외에 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수술 결정

“저 같이 애 낳으면서 근육이 소실된 경우는 요실금 수술을 해야지 케겔운동으로는 안 된다고 하셔서. 그때는 정말 해야 해서 했어요.” (ID1, 여, 40대, 회사원)

“‘즈, 스, 츠’ 발음만 나와도 새는. 그래서 안 되겠다.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는구나. 정말 우울해서. 용기를 못 내다가 점점 평상시에 말을 할 때에도 나오다 보니까” (ID3, 여, 50대, 회사원)

“저는 그 동안 계속돼 왔기 때문에 바로 수술했어요. 잔뇨감이 생기면서 병원에 갔더니 요실금 검사하자고 해서 했더니 요실금이라고 해서 저는 바로 수술 결정했어요.” (ID6, 여, 40대, 주부)

인터넷 검색 결과 참고 후 수술 결정

“저는 요실금이라고 느껴서 검색했을 때, 제가 본 검색은 수술이 최고다. 케겔운동 별 소용없다 봐서, 수술이 낫겠다 싶어서 수술 결정한 거거든요.” (ID6, 여, 40대, 주부)

갑작스런 체중 증가와 체중 감소의 어려움으로 수술 결정

“갑자기 살이 많이 찌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살을 뺄 계획이 있냐고 해서 계획은 있는데 안 빠진다고 했더니 수술하라고, 불편하면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살을 빼면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고” (ID4, 여, 40대, 주부)

여성 비뇨기과의 발견

“계속 일을 하나까 버티고 버티다 여성 비뇨기과가 있다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ID2, 여, 50대, 회사원)

2.2 치료법 선택

치료법 선택이유

의사의 TOT (경폐쇄공 테이프술) 수술 권유

“선생님이 수술하고 회복까지 이틀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제일 가깝고 큰 병원에 가서 선생님과 얘기했는데 간단하고 효과도 좋다고 하시고 수술 경험도 많다고 하시고 해서 믿고 하는 거죠.” (ID1, 여, 40대, 회사원)

“(다른 수술법) 있는지도 몰랐어요.” (ID4, 여, 40대, 주부)

“그냥 선생님이 수술은 이런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한 거죠.” (ID6, 여, 40대, 주부)

“저도 그렇게” (ID5, 여, 40대, 주부)

단일절개 슬링수술(미니슬링) 관련

“몸에 칼을 대기 때문에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갔죠. 미니슬링은 재발률이 있고, TOT는 해서 좋았다는 그런 것만 많았고” (ID3, 여, 50대, 주부)

2.3 치료법 정보제공자

Q. 누구로부터 해당 치료를 추천받으셨습니까?

인터넷 검색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하는데 거기에 다 TOT라고 나와요.” (ID2, 여, 50대, 회사원)

“많이 알아봤죠.” (ID3, 여, 50대, 회사원)

“저도 인터넷 검색해 보고, 다른 케겔운동이나. 약물치료는 저와 안 맞는 것 같고. 바로 가서 수술 날짜 잡았어요. 너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또래는 없어요. 우리 엄마가 했다는 거예요. 어느 수술법으로 될 했다는 정보가 없어요.” (ID5, 여, 40대, 주부)

“제가 본 검색은 수술이 최고다. 케겔운동 별 소용없다 봐서,” (ID6, 여, 40대, 주부)

의사 설명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으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ID5, 여, 40대, 주부)

Q. 치료법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의료인의 수술적 치료법 정보 제공

“(수술한) 선생님이요.” (ID2, 여, 50대, 회사원)

“원장님이요.” (ID3, 여, 50대, 회사원)

최초 방문은 산부인과(6명)

“비뇨기과라고 알고 있었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편한 것이 산부인과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ID5, 여, 40대, 주부)

수술은 산부인과(5명), 비뇨기과(1명). 요실금 수술 경험 많은 병원 선호

“카페에서 수술하신 분이 요실금은 비뇨기과에서 해야 된다고 올려서 그걸 검색해 봤어요. 자세히 공부했어요. 검색했더니 비뇨기과가 맞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다 보니까 비뇨기과로 갔고” (ID2, 여, 50대, 회사원)

“비뇨기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비뇨기과를 찾아보니까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출산했던 병원에서 요실금 수술 홍보 글도 있어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9~10명 있는데 원장님만 그걸 담당하시더라고요.” (ID5, 여, 40대, 주부)

“저는 집 근처 여성전문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선생님 평 좋으시고 수술 많이 하신 분” (ID1, 여, 40대, 회사원)

2.4 치료 결정의 어려움 정도

Q. 요실금 치료를 위해 여러 치료법 중에 해당 치료법(예, 중부요도슬링, 단일절개 슬링수술 등)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까?

수술 통증 두려움,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심사숙고 후 결정

“(9점) 저는 9점. 일을 그만두고 실천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아파해요. 나중에 병원 가서 알아봤더니 앞에는 요실금 수술을 하는 거고, 뒤에는 이쁜이 수술을 하는 건데 이걸 동시에 같이 한 사람들이 아파하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저도 환자가 수술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물어보고 했어요” (ID2, 여, 50대, 회사원)

“(9점) 9점. 삶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운동은 조금씩 줄여가거나 뛰는 걸 안 할 수는 있는데 말할 때도 그러니까. 거기서 도저히는 못 참겠다 해서 고민 끝에 하게 된 거예요.” (ID3, 여, 50대, 회사원)

지인의 회복기간을 본 후 자녀 보육과 직장생활 중 장기휴가 처리에 대한 어려움

“(7점) 저는 7점. 저도 애 낳고 요실금 있을 때는 애를 당장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때문에 참은 기간이 오래거든요. 직장에서 휴가를 그렇게 몰아서 쓸 수 없으니까, 그때 수술했을 때는 지인이 1~2달을 여기저기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ID1, 여, 40대, 회사원)

통증, 수술용 테이프 삽입에 대한 거부감

“(5점) 5점.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고민을 했는데 아플 것 같아서. 안에 뭐가 들어가는데. 짜고 수술하는 것을 몰랐고 뭔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찝찝하기도 했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특별한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ID4, 여, 40대, 주부)

수술 후의 효과 기대

“(5점) 5점. 할까말까 갈등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먹은 것이 제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운동을 해서 몸이 빨리 좋아지고 싶은 거예요.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ID5, 여, 40대, 주부)

다른 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 요실금 수술은 간단하다고 느낌

“(3~4점) 저는 3~4점. 별로 고민이 안 됐던 것이 애도 제왕절개로 2번이나 수술했고, 자궁근종도 했고. 3번 정도 수술하니까 요실금은 수술이 굉장히 간단하다고 해서” (ID6, 여, 40대, 주부)

2.5 치료법 정보의 충분정도

Q. 충분한 정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림, 모형을 활용한 설명, 영상 또는 이미지 사진을 활용한 설명 희망

- “그림을 그리면서 디테일하게 해줘서 알아듣기가 아주 쉬웠어요.” (ID2, 여, 50대, 회사원)
- “선생님이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했는데. 영상도 보여주면 좋겠어요.” (ID6, 여, 40대, 주부)
- “그림으로 이해를 돕는 설명을 친절하게 해 주셔서” (ID3, 여, 50대, 회사원)
- “모형 같은 것을 보여줬어요.” (ID4, 여, 40대, 주부)
- “영상이나 이미지 사진으로. 어느 부위를 뚫고 수술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보고서 인식을 할 수 있게. 그냥 테이프로 걸어요. 그렇게만 들어서.” (ID5, 여, 40대, 주부)

요실금 종류 설명, 소변 검사, 초음파 검사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

-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 가지 종류의 복잡성, 절박성, 이런 식으로 제 증상을 체크해 나가셨고. 저는 말로 하는 것보다 초음파와 소변량 체크해서 그 이후에 잔뇨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이니까” (ID2, 여, 50대, 회사원)
- “요실금 수술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테스트라고 해서 물을 1리터인가 2리터 마시고, 복잡성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한다 정도까지 들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높은 것이 안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10 중에 8 이상이면 수술해야 합니다. 위급합니다'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나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변 테스트는 왜 한 거지, 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ID3, 여, 50대, 회사원)

절개 부위와 후유증에 대한 설명

- “저는 80%는 얘기해 준 것 같고 20%는 얘기 안 해준 것 같아요. 어디를 뚫는다는 얘기는 안 해줬고, 테이프를 건다는 얘기만 했어요. 사타구니를 뚫어서 한다는 설명을 못 들었고, 후유증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어요.” (ID5, 여, 40대, 주부)
- “후유증에 대해서는 인터넷에도 잘 안 나오고 선생님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ID6, 여, 40대, 주부)

환자가 사전에 공부한 정보 설명시 환자 이해도 상승

- “이미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산부인과적으로 비뇨기과적으로 공부를 하고 갔기 때문에 선생님 말을 알아듣기가 쉬웠어요.” (ID2, 여, 50대, 회사원)
- “저는 솔직히 말씀하셔도 무슨 말인지 헷갈리고, 하고 나니까 이랬구나. T뮌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ID4, 여, 40대, 주부)
- “저도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서 이런 수술이 있구나 보고 갔고,” (ID6, 여, 40대, 주부)

Q. 요실금 치료를 위해 해당 치료법(예, 중부요도슬링, 단일절개 슬링수술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으셨습니까?

충분한 설명으로 심리적 안정

“(9점) 사실 부작용 때문에 수술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마음이 놓였던 것 같고. 그래서 마음 놓고 할 수 있었어요.” (ID2, 여, 50대, 회사원)

“(8점)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정서적으로 안도감이 있었어요.” (ID3, 여, 50대, 회사원)

질성형 수술 병행시 효과에 대한 설명 부족

“(8점) (질 성형) 같이 해서 안 좋은지 좋은지, 이런 것을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쪽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선생님은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할 때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ID1, 여, 40대, 회사원)

수술방법(테이프 위치), 통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 부족

“(7점) 슬링을 어디에 정확하게 가는 줄 몰랐어요. 엄청 아팠거든요. 그 뒤에 왜 저걸 설명을 안 해줬지? 후유증에 대해서는 왜 설명을 안 해줬지?” (ID5, 여, 40대, 주부)

“(7점) 저는 영상으로 자세히 봤으면 그림으로 대충 봐서, 정확한 수술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ID6, 여, 40대, 주부)

2.6 치료결정시 필요한 정보

Q. 치료를 결정할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하였습니까?

수술방법

“수술방법” (ID1, 여, 40대, 회사원)

“영상이나 이미지 사진으로 어느 부위를 뚫고 수술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보고서 인식을 할 수 있게.” (ID5, 여, 40대, 주부)

수술 후 회복시간

“꽤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서 저는 편했어요” (ID1, 여, 40대, 회사원)

후유증, 부작용 가능성 설명

“후유증, 부작용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내일 출근하셔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만 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아플거라고 생각하죠. 사람마다 다르다고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ID5, 여, 40대, 주부)

“수술 후에 소변 양이 제대로 나오는지 조절이 되는지 약을 먹게 하는데, 그 약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그 것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시. 사실 부작용 때문에 수술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ID2, 여, 50대, 회사원)

수술 후 재발 전까지의 무증상 유지기간 및 재발 가능성 설명

“개인적으로는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재발을 안 해야 된다는 거요. 절대로. 2년 지났는데 다시 발생한다면 정말 괴로웠을 것 같거든요. 얼마큼의 빈도로 재발할 것이며, 재발하는 것이 수술 이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을 때인지 이 2가지가 중요한데, 저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여쭙봤더니 10년에 1번 정도는. 아무래도 테이프다 보니까 그걸 10레벨에서 9레벨로 조이는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ID3, 여, 50대, 회사원)

“그전(재발율은) 얘기 안 했어요.” (ID5, 여, 40대, 주부)

“저는 또 그럴 수(재발) 있다고 들었어요.” (ID4, 여, 40대, 주부)

“저도 들었어요.” (ID6, 여, 40대, 주부)

“3년이 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ID1, 여, 40대, 회사원)

2.7 단일절개 슬링에 대한 정보제공시 치료법 결정 도움정도

Q. 요실금 치료를 위해 평가대상 치료법(단일절개 슬링수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면, 치료법 결정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치료 성공률이 높은 수술법 선택

“성공률이 높은 거요.” (ID5, 여, 40대, 주부)

“저도 성공률 높은 거요.” (ID1, 여, 40대, 회사원)

“어차피 침대 한번 눕는 건데” (ID3, 여, 50대, 회사원)

재발률이 적은 수술법 선택

“재발률이 낮아지는 거라면 그거로 할 것 같아요.” (ID5, 여, 40대, 주부)

“재발률 적은 거요. 어차피 한 번 하는 건데. 유지 기간으로 판단할 것 같아요.” (ID6, 여, 40대, 주부)

의사가 권유하는 수술법 선택

“그 선생님이 경험이 많은 거로 할 것 같아요.” (ID2, 여, 50대, 회사원)

“저는 찾아보고 갔어도 의사 선생님이 권한 것을 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본인들이 해 왔던 수술을 많이 권하니. (미니슬링을 권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ID6, 여, 40대, 주부)

“TOT보다 이게 낫다고 하면” (ID4, 여, 40대, 주부)

“나중에 재발률도 물어보겠쬬. 어떤 게 재발률이 높냐. 낮은 걸로 선택해서” (ID5, 여, 40대, 주부)

향후 단일절개 슬링수술을 받을 의향 있음

“미니슬링은 짜지도 않고 간단하고 재발률이 얼마인지 많은 사람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공통된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재발이 된다면 산부인과로 가서 이걸 얘기하고 이게 더 간단하니까. 이걸 찢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걸 잘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선생님이 없으니까 저는 기다렸다가 이걸 할 생각이예요.” (ID2, 여, 50대, 회사원)

“저도 해봤었으니까 비교를 해보긴 할 것 같아요.” (ID1, 여, 40대, 회사원)

3. 치료과정 불편함

Q. 요실금 치료를 위해 해당 치료법(예, 중부요도슬링, 단일절개 슬링수술 등)을 받는 과정 중에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요실금 검사의 불편함

“검사할 때 밑으로 물 집어넣고 압력 테스트하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빠근하고 아파요. 방광과 항문 쪽에 거꾸로 집어넣어서 압력을 재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ID5, 여, 40대, 주부)

“저도. 아픈 것보다 짹짹하고. 방광에 물을 넣더라고요. 압력으로” (ID4, 여, 40대, 주부)

“수술보다 검사 과정이 더 힘들었어요. 저도 그랬고 그런 피드백은 많아요. 소변줄을 집어넣고 참으라고 하던데. 짹짹함도 있고” (ID6, 여, 40대, 주부)

“소변 줄을 꽂고 물 엄청 마시고” (ID3, 여, 50대, 회사원)

수술 후 잔뇨 체크 불편 및 번거로움

“치료 수술을 하고 나서 계속 일주일 단위로 잔뇨 체크를 하세요. 약을 일주일씩 받고 소변 테스트지를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한 달만 하면 된다고 설명하셨어요. (수술 후) 일주일 사이에는 그래도 조금 팬티가 젖어요. 속제가 피곤해요. 왜냐하면 소변 컵을 밖에 갖고 나가야 돼요.” (ID2, 여, 50대, 회사원)

수술 후에는 1~4회 병원에서 경과 체크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한 달만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해주세요.” (ID2, 여, 50대, 회사원)

“일주일 후. 또 이주일 후에 가고” (ID4, 여, 40대, 주부)

“저는 1회. 일주일 뒤에” (ID5, 여, 40대, 주부)

“저도 일주일에 1번. 그리고 한 달 뒤에 1번” (ID6, 여, 40대, 주부)

4. 치료 후

4.1 치료 후 불편함

Q. 요실금 치료를 위해 해당 치료법(예, 중부요도슬링, 단일절개 슬링수술 등)을 받은 이후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환자마다 수술 후 겪는 통증과 불편함의 차이 존재

“저는 수술을 한 거 맞아? 이 정도로. 저는 그날 쇼핑도 했는데” (ID2, 여, 50대, 회사원)

“저는 괜찮았어요.” (ID6, 여, 40대, 주부)

“다리가 빠근하고 살살 들어 올리는 정도지 걷는 것은 괜찮았어요.” (ID4, 여, 40대, 주부)

“저는 하루 입원하고 퇴원하는 날까지 못 걸었고, 2~3일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ID1, 여, 40대, 회사원)

“저는 첫날은 사타구니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변기도 못 앉았어요. 그리고 명이 여기까지 들었어요. 왼 쪽은 거의 안 아팠어요. 오른쪽을 그렇게 해서 3주 변기에 앉을 때마다 붙잡고. 그거 지나니까 그 뒤로는 괜찮고. 좌우가 너무 달라서, 병원 가서 물어봤어요. 그제서야 부작용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ID5, 여, 40대, 주부)

“저는 다른 수술을 같이 병행(질성형 병행)해서 그런지 한 달 동안 누워 있었어요. 완전 대공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폭력 당하면 피멍 들잖아요. 그거처럼 여기가 잔뜩 그랬어요.” (ID3, 여, 50대, 회사원)

개인별 개선 속도 차이

“체크를 굳이 할 필요는 없었고, 우선 안 새니까”(ID1, 여, 40대, 회사원)

“일주일 사이에는 그래도 조금 팬티가 젖어요.” (ID2, 여, 50대, 회사원)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계속 물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ID6, 여, 40대, 주부)

2~3개월 간 배뇨 속도 저하

“저는 2~3달 정도 소변볼 때 굉장히 천천히 나온 것 같고 이 후 그 증상은 없어졌어요.” (ID6, 여, 40대, 주부)

수술 1개월 후 심리적으로 잔뇨감이 남아있는 느낌

“지금 한 달이 됐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머리에서 잔뇨감을 느껴요. 그런데 새지는 않지만 제 머릿 속에는 그 기억 때문에 조절을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ID2, 여, 50대, 회사원)

“잔뇨감은 아직 조금 있어요. 야뇨는 있는데, 그건 요실금과 상관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방광염 체크하면 아니라고 하니까”(ID6, 여, 40대, 주부)

수술 테이프 이물감 1년 정도 느낌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테이프 존재감을 1년도 넘게 느꼈어요. 선생님이 괜찮다. 6개월 정도는 통상적으로 느낀다고 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안 느낀 지 1년 반 정도” (ID3, 여, 50대, 회사원)

1일 간 입원 후 별다른 불편함 없었음

“저도 하루 입원하고 퇴원하는 날까지 못 걸었어요. 2~3일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ID1, 여, 40대, 회사원)

“하루. 아침에 퇴원했어요.” (ID3, 여, 50대, 회사원)

4.2 치료만족도

Q. 요실금 치료의 해당 치료법(예, 중부요도슬링, 단일절개 슬링수술 등) 효과에 만족하십니까?

대화나 재채기 시 요실금 증상 개선

“새는 것 때문에 문제였으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ID1, 여, 40대, 회사원)

“저도 일단 새는 것이 없으니까.” (ID4, 여, 40대, 주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100% 만족이에요.” (ID3, 여, 50대, 회사원)

“재채기했을 때 안 새는 거요.” (ID6, 여, 40대, 주부)

뛰기, 줄넘기 가능

“저는 수술하고 10일 있다가 제자리 뛰기를 100개씩 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줄넘기도 할 수 있고. 저는 그것에 만족했어요.” (ID1, 여, 40대, 회사원)

“운동을 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ID5, 여, 40대, 주부)

냄새가 사라짐

“우선 냄새가 안 나고” (ID2, 여, 50대, 회사원)

**Q. 요실금 치료의 해당 치료법(예, 중부요도슬링, 단일절개 슬링수술 등) 효과에 만족하십니까?
(10점 만점 기준 만족도)**

요실금은 아니지만 빈뇨증, 방광염, 야뇨 증상이 있음

“(9점) 저는 9점이에요. 방광염이 있을 때 다시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요. 평상시나 예전 요실금 상황이 발생해도 새지 않기 때문에” (ID3, 여, 50대, 회사원)

“(8점) 8점 정도. 안 새는데, 빈뇨증이 되게 심해서 자주 화장실을 가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자다가 2~3번 가니까. 이것(요실금)과 상관이 없나 봐요.” (ID1, 여, 40대, 회사원)

“(9점) 저도 야뇨 때문에 8점. 하지만 요실금만 생각하면 9점” (ID6, 여, 40대, 주부)

현재는 만족하지만 후유증, 재발가능성이 우려됨

“(9점) 9점. 우선 냄새가 안 나고 야뇨도 없어서 9점 주지만. 야뇨를 개선시키는 약을 먹는데 오래 먹다 보면 변비가 생긴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ID2, 여, 50대, 회사원)

“(9점) 9점. 1%는 재발 가능성을 둔 거고, 지금 새지 않아서” (ID5, 여, 40대, 주부)

“(8점) 8점. 저도 재발을 걱정이 있어요.” (ID4, 여, 40대, 주부)

4.3 치료 추천의향

Q. 요실금 치료를 위해 해당 치료법(예, 중부요도슬링, 단일절개 슬링수술 등)을 주변 지인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요실금 증상 개선

“(10점) 10점. 제가 모임 가서 수술했다고 하니 주위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오래 됐다고. 그래서 제가 추천했어요. 병원이 많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너무 희소식을 들은 것만큼 되게 좋아했어요.” (ID2, 여, 50대, 회사원)

“(10점) 수술에 대해서는 10점. 병원은 각자 알아서” (ID5, 여, 40대, 주부)

“(10점) 10점. 저는 효과가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간단한 수술이라고도 생각하고 하니까. 수술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 없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ID6, 여, 40대, 주부)

“(10점) (수술 전) 3점에서 10점으로. 다른 수술(질성형)과 같이 하다 보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느끼는 어려움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서 만족감이 크지 않나.” (ID3, 여, 50대, 회사원)

수술 후 불편함에 대한 개인차 발생 염려

“(9점) 저는 9점 정도. 저는 아예 통증이 없을 줄 알고. 3일 정도는 빠근하고 걷기 힘든 것이 있어서” (ID1, 여, 40대, 회사원)

“(8~9점) 저는 8점에서 9점 정도. 저는 만족하지만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원망 들을까봐” (ID4, 여, 40대, 주부)

5. 기타

Q. 요실금 혹은 해당 치료법(예, 중부요도슬링, 단일절개 슬링수술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수술 성공률, 의사의 수술 경험,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 필요

“산부인과는 거의 요실금 수술을 해요. 성공률과 몇 번을 했는지 그런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병원이 잘하고 후유증 어떻다는 것이 없어서. 블로그 마케팅으로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올린 글들은 엄청 많은데, 그 안에서 내가 골라야 하고. 이걸 그게 없으니까 약간 쉬쉬하는 분야니까.” (ID5, 여, 40대, 주부)

병원 정보 필요

“병원마다 환경이 다른 것 같아요. 옛날 것을 쓰는 데가 있고, 요즘 나온 것들을 쓰는 데가 있고. 우리는 그걸 처음 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ID2, 여, 50대, 회사원)

“그런 병원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ID5, 여, 40대, 주부)

실비 보험 적용 안됨

“실비는 안 되더라고요. 70~80정도 나와요.” (ID4, 여, 40대, 주부)

“검사수치를 통과하면 의료보험은 돼요. 여성만의 질병이라서 실비가 안 된다는 것이 불쾌해요. 검사해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수치가 나온 건데” (ID6, 여, 40대, 주부)

“나이 먹으면 다 하기 때문에 (실비보험) 보장 범위에서 뺀 것 같아요.” (ID2, 여, 50대, 회사원)